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여호와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개역, 창세기 2:8-9]

에덴동산의 나무들

에덴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나요? 선악과는 끝에 나옵니다. 선악과 앞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앞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더라'고 합니다. 에덴동산에 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나무가 뭔가요?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먹기에 좋은 나무일 것이고 예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겠지요?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생명나무라고 답하겠지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에덴동산 하면 선악과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밥을 먹다가 돌을 하나 씹었습니다. "어째서 밥이 순 돌 투성이냐?" 그러죠? 몇 개 나왔나요? 하나 나왔죠. 쌀은 몇 개인가요? 셀 수 없이 많은 쌀을 놓아두고 돌 하나 씹은 것 가지고 돌 투성이라고 할까요? 돌 한 개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많은 쌀을 고맙게 여깁시다. 선악과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나무가 아닙니다. 보기 좋은 것도, 먹기 좋은 것도 있고 생명나무도 많이 있으니 그 쪽에 신경을 더 씁시다. 식사하다 돌 하나 씹으면 한마디 하세요. "어? 돌 한 개 있네" 그러십시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말이 바뀌면 곤란합니다. 남편이 돌을 하나 씹었는데 부인이 옆에서 "어? 돌 한 개 있는가봐"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보, 돌 많아?"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 남편은 "겨우 한 개 있어."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거꾸로 되면 조금 시끄러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칭찬하는 법도 훈련되어야

우리 눈은 잘하는 것 수십 가지는 보지 못하고, 못하는 것 한 개는 잘 봅니다. 못하는 하나에 주목하는 것이 인간들의 심성인 것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런 쪽으로 더 발달된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안 좋은 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좋은 것을 찾는 훈련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좋은지,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인이 사랑스러운 이유를 몇 가지나 꼽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막혀서 잘 안 나오죠? 그렇다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주루룩 꼽아서 40개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우리 남편을 내가 존경해야 할 이유는? 그것도 잘 안되죠? 밖에 나가서 우리 남편 존경스러운 이유를 말하나요? 아니면 홍보는 일에 더 익숙합니까?

남자들은 조금 각성합시다. 부인들이 밖에 나가서 남편을 어른 취급 잘 안 하더라고요. 애들하고 같은 급수에 넣더라고요. 집에서는 가장이라고 대접을 받는지 몰라도 나가서 부인들끼리 얘기할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부인도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존경할 만한 이유를 말하려면 잘 안 나오지만 홍보라고 하면 자동으로 주루룩 나올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부디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훈련과 연습을 혼자서라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웃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평소의 얼굴이 웃고 있는지 아니면 찡그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폐에는 반드시 사람의 얼굴이 들어갑니다. 지폐에 사람의 얼굴을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위조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러서 위조했거든요. 그런데 사람 얼굴은 선으로 표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위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 하나를 잘못 그으면 험상궂은 표정이 됩니다. 얼굴에 이렇게 줄 하나 그어 보세요. 금방 흉측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위조한 것이 금방 드러나 버리죠. 위조 화폐라는 것을 쉽게 분간하도록 사람의 얼굴을 그려 넣습니다.

우리 얼굴에 세밀한 근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평소에 인상을 자꾸 쓰면 인상 쓰는 근육이 발달합니다. 마치 지폐에 잘못된 선을 하나 그은 것처럼 웃어도 찡그린 얼굴이 됩니다. 평소에 잘 웃고 밝은 근육을 쓰고 계시는 분은 그 부분의 근육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상을 써도 남들이 보기

에는 웃고 있는 밝은 표정이 됩니다. 아무 표정없이 거울을 한번 보세요. 밝은 표정이면 됐고 조금 찡그리거나 남들이 보기에 안됐겠다 싶으면 거울 쳐다보시고 빙그레 웃으세요. 그런 다음 표정을 고정시킨 채 그대로 주무세요.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0세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말하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굴에 남는다는 말입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지 않아도 저절로 웃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특송 하러 나오시거든 누가 밝게 웃고 계시는지 누가 찡그리고 계시는지 유심히 한번 보세요.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웃고 있잖아 하면서도 울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 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그리 좋다고 아직도 그 나무에?

에덴동산에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살리는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가졌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온갖 불행이 바로 거기에서 연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나무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따지는 선악의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 나무를 쳐다보고 욕심을 낸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나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첫번째 이유는 선악과보다는 생명나무에 관심을 쏟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지만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잘 가리시는 분이라면 당장 불들어서 끝을 내야죠. ‘너 먹었지? 내가 분명히 먹지 말라 했지! 그런데 먹었지? 먹으면 죽는다 했지? 그럼 죽어야지’ 이래야 할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십니다. 어디 있는지 모를까요? “벗은 것이 부끄러워 제가 숨었습니다.” “오 그러면 네가 선악과를 먹었던 말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자꾸 묻습니다. 묻긴 왜 물어요? 그냥 한 칼에 날려버리시지. 자꾸 묻는 이유는 용서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야 하나요? 우리 교회에 그런 아이 있잖아요. 엄마가 야단치려 하면 무조건 닭똥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며 손이야 발이야 빌어버리는데 어떻게 야단칩니까? 아담도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먹었느냐?” 하니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먹었다는 이야깁니까? 여자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여간 자기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먹었느냐?” 이번에도 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느냐 하면 어떻게든 용서하고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잘못했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하네요. 할 수 없죠. 벌 받아야죠. 뱀에게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서 징계를 선언하시는 말 속에 메시야를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은근슬쩍 물어놓죠. 매를 들어 징계하면서 ‘그럼에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너희들을 다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겠다’는 메시지를 거기에 심어두십니다. 선악을 따져서 혼을 내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는 길을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누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는지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머리를 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선악을 따지지 않겠다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덮는 이런 심판은 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혼이 나서 반성했으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짝수가 노랑다는 말 아냐요? 짝수가 노랑다면 분질러 버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니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고 하십니다. 일종의 포기입니다. 이 놈들을 살리려면 내가 심판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잘못할 때마다 심판하다가는 씨도 남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일일이 따졌다가는 아무것도 안될 것 같으니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심판하지 않아야겠다고 하나님께서 물려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양보하고 물려서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용서할 건덕지라도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용서하고 살리려고 애를 쓰십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 오십명이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왜 오십명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아무리 악해도 오십명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는 자꾸 깎아내리는 것을 보면 오십명은 없겠다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그 소돔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체면상으로도 오십명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오십명만 있어도 내가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에 ‘내가 너무 많이 불렀나?’ 싶어 조금 줄입니다. 얼마 줄이나요? 줄이는 수치가 참 재미있습니다.

오십명에서 다섯명만 뺍니다. “하나님 사십오명밖에 없으면요?” “그래도 용서하지!” 또 다섯명을 뺍니다. “그럼 40명은요?” 그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팍팍 깎는 건데...’ 간이 조금 커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명을 뺍니다. 우리가 물건을 깎을 때 이렇게 깎는 법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깎아내린 숫자를 물건 깎는 방법과 비교해 보면 영 서투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을 잘 들어주시니까 간이 커져서 열명씩 팍팍 깎아내려 갑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맞아죽을 일이겠지만 이번만 더 말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명을 또 뺍니다. 그래서 열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왜 더 깎지 않았을까요? 왜 열명에서 멈추었을까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양보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깎아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차마 양심상 더 못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룯의 가족만 해도 몇 명인데... 설마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열명도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용서할 거리가 조금만 있어도 용서하겠다는 것이 거기서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항하고 징계를 받았습니까만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들어 주셨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 한 번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같이 못가겠다. 모세야 내가 인도해서 가라.” 같이 못가시는 이유가 너무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못가시는 이유가 “같이 가다가는 너희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나도 핫김에 짝 쓸어버릴지 모르니까 위험해서 같이 못가겠으니 너희끼리 가라 그러면 나중에 내가 따라갈 게.”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미안하고 황송하고 부끄러워서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또 그러셨단 말입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무섭게 심판하실 듯하면서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매어 달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여명이나 있는데 그들을 어찌 한꺼번에 멸한단 말이나?” 하시면서 뜻을 돌이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사람 붙들어서 이런 이런 잘못을 했으니 벌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기보다는 오래 참고 웬만하면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임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잘 잘못을 따지며 꼬집기보다는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관심을 더욱 쏟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들 하나님 잘 섬기시고 모두 착하게 사셔서 지금 이 자리에 멀쩡히 잘 계시는 것이죠? 겉보기엔 그렇습니다. 하지

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일일이 벌하신다면 우리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홍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런 것은 잠시 묻어놓고 어떻게 하면 저 형제를, 형편 없는 형제지만 우리의 귀한 형제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관심을 더 쏟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잘못을 꼬집어내고 책망하고 야단하기에 바빴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기다리고 인내하며 용서하기에 바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기에 바쁘지 않았나요? 그 제자들 중에서 누구를 붙들고 “너 그때 도망쳤지? 왜 도망갔어?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갔어?”라고 추궁하셨나요? 그 제자들 중에 제일 죄 많은 제자가 누구니까? 누구를 붙들어서 죄를 따지셨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제자로 불렸던,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겠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무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했을까요? 베드로의 답변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차마 “예!” 소리를 못합니다. 왜요? 지은 죄가 많아서, 하도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애걸 하죠. 아이들 하는 말로 하면 “주님, 아시면서 왜 묻습니까?” “그래? 사랑한단 말이지?” 하시면서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님 곤란하게 아시면서 자꾸 묻습니까? 어떻게 제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또 말하겠습니까?” 그 말 아닐까요? 그런데 또 묻네요.

베드로의 속이 정말 뜨끔할 겁니다. ‘왜 하필이면 세 번일까? 내가 세 번 모른다고 했다고 꼭 예수님도 복수를 이렇게 하셔야 하나?’ 그 복수가 어떤 복수입니까? 예수님은 복수한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만 물으셨을 뿐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왜 네가 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해놓고 좀 위험하다고 뭐, 날 모른다고?’ 우리 같으면 당장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얼마나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픈 마음을 그렇게 위로하고 달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전해오는 얘이지만 베드로가 로마에서 또 도망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무엇이랴 야단을 쳐야 할까요? 야단 안 치셨어요. ‘내가 가서 또 달리면 되지’라고 하셨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 주님이 앞장 서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며 ‘주일에 일 하나 안 하나 어디 보자’ 눈을 부라리며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살려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움아매려 애를 썼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수님은 늘 병들고 죄많은 사람들만 찾아다녔고 바리새인들은 ‘답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느냐?’고 비난을 했지요.

죄인들을 찾아가서도 “네가 이런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벌 받아서 이 모양 아니냐?”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소경된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든 간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심과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에 예수님이 신경 쓰셨지 누구 죄 때문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되었는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의 잘못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세우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중한 것

왜 우리는 선악과보다 생명나무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세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중한 건 생명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처음 나왔던 이 선악과는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 사건 이

후로 선악과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생명수가 흘러가는 강가에 생명나무가 줄지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열두 가지 열매가 맺히는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가에 좌악 늘어섰습니다. 잎사귀 하나까지도 생명을 살리는데 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가 풍성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에덴동산에 만들었던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지어주는 역할로서 존재했지만 생명나무는 우리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장차 우리가 갈 그 나라에 풍성하게 있습니다. 선악과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복과 동정복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입히는 훈련복이 있습니다. 거지도 그런 옷은 안 입어요. 그것 입혀 놓으면 인품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는 완전 거지 같아요. 그런 옷을 입혀서 신체검사한다고 병원 마당에 앉혀 놓았는데 마침 간호장교가 옆에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제가 작대기 두 개 달고 있고 간호장교는 중위입니다. “중위님, 저기 앉아있는 저 친구들 보니까 어때요?” “거지떼 같아요.” “그래도 거지 취급 하지 마세요. 집에 가면 다 귀한 아들이고 그 중에는 선생님도 있고, 심지어 사장님도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잠시 저렇게 거지꼴 하고 앉아 있는 것이니 거지 취급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앉아 있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흙구덩이에 구르다가 찢어지면 꿰매고 흙으로 떡칠이 돼도 훈련 마치면 벗어서 다시 빨아서 또 입습니다. 훈련복은 훈련 받을 때만 입는 누더기 같은 옷입니다. 그런데 자대에 가면 동정복이라고 있습니다. 동정복이 무어냐고 현역군인에게 물었더니 잘 모르겠답니다. 제대해서 온 우리 청년에게 물었더니 “겨울 정복 아님니까?” 하더라고요.

현재 육군에는 동정복이 없고 해군 공군에는 있답니다. 외출 때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은 얼마나 깨끗하게 보관하는지 모릅니다. 전방 부대는 다리미가 없으니 꼭 펴서 깔고 누워서 그 위에 잡니다. 그리곤 앞에 줄 세울 때는 마루에 틈 있는 곳에 대고 동전으로 꼭 문지릅니다. 그러면 줄이 꼭 썩니다. 얼마나 반들반들하게 해서 나가는지 모릅니다. 멋지게 해서 나갑니다. 그 멋진 옷은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나무에 비할 수 있겠고 선악과는 누더기보다 못한 훈련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항상 잔소리 하라?

그런데 지금도 에덴동산 하면 선악과가 먼저 생각나나요? 왜 그렇니까? 먹기 좋고 보기 좋은 나무와 생명나무도 놔두고 왜 자꾸 선악과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선악을 열심히 분별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만들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이것은 잘못했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열심히 이야기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들은대로 착하게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애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잘 안 따라 줍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 확실히 느끼고 있으면 매를 들고 야단을 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 성질만 나면 우리를 팬다’고 생각한다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를 자꾸 따지기보다는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혹시 부모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현실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좀 없어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안되는 아이한테 공부 좀 더 잘할 수 없느냐, 성적 좀 더 올리면 안되겠느냐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본인도 답답하고 힘들고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해도 잘 안되는데 거기다 대고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따지면 잘못하다가는 “엄마는 고등학교 때 얼마 했는데...?”라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오려고 해도 참아주고 “그래 이 점수라도

따려고 고생 많이 했지?” 이런 한마디가 훨씬 낫습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항상 잔소리하라’는 말씀 있나요? 없나요? ‘하루 한번씩 꼭 아이들을 책망하라’는 말씀은 있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잘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 야단만 쳐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은사

우리 교회는 대단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아주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야, 이 교회 대단한 교회야!’ 한다면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대단한 사람들 속에 끼여서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대단한 사람들 이야’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주눅 들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대단하다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특별히 그 대단한 능력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익숙하다면 더더욱 드러내지 마십시오.

판단하는 말이 하고 싶어도 그 말을 접어 놓고 형제의 기를 세워주세요. 연약한 형제들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더 요긴합니다.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뒤로 좀 미뤄 두십시오. 사랑하는 능력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사랑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더 드러내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만 잘하시면 차가운 로봇 같은 인간이 됩니다. 컴퓨터가 일을 얼마나 잘합니까? 놀라워요. 그러나 차갑습니다. 그것에 무슨 정이 있습니까? 예전에 종종 쓰이던 말인데 ‘차가운 정통’이란 말을 아십니까? ‘정통’ 참 좋은 말이지요. ‘정말 말씀대로 산다’ 이것이 정통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교단이나 사람들이 대체로 차가워요. 자를 때 매정하게 잘라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차가운 정통’입니다. 따뜻한 정통은 없을까요? 참으로 냉철한 이성을 지녔는데도 따뜻한 사람은 없을까요? 생명나무에 더 관심을 쏟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애쓰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방에 결과를 보려하지 말라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훈련시키고 책망하는 것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쏟으면 결과가 더딜지라도 효과는 오래갑니다. 아주 오래 전이지만 제가 고등학생을 가르칠 때 제 옆 반은 사고도 없고 탈도 없고 조용한 모범반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좀 사람이 험령해요. 애들하고 노는 꼴이 비슷해서 어떨 땐 구별도 잘 안되는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저래서 애들 지도가 되겠나 싶은 말이 나올 만도 한데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 것이 졸업하던 날 그 모범생 교실은 엉망이 됐습니다. 일년내내 모범생만 있던 그 반이 졸업하던 날 유리창이 다 깨지고 책상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 옆 반, 일년내내 시끄럽던 제 반은 깨끗하게 정돈된 채 아이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책망하고 고함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그리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인내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 주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절대 한 방에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 몰라서 안 듣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해서 알아들을 것 같으면... 여기에 한 번 얘기해서 알아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 몰라서 안 합니까? 알면서도 잘 안되는 것 천지입니다.

교객을 감동시켜라

물건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사람을 소홀히 하고 물건의 장점만 따지다보면 제대로 못 팝니다. 가끔 서점 주인들이 뒤로 와서 돈봉투를 쥐가면서 책 좀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서점 주인은 봉투 들고 오지 않습니다. 이 분은 심심하면 학교에 옵니다. “선생님, 요즘 물이 좋던데

놉시 갑시다.” 하면서 몇 명 붙들고 놉시 갑니다. 선생님 집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빠뜨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평소에 와서는 그냥 놀다갑니다. 좀 가라고 해도 뭐 거들 것 없냐고 학교 와서 놀다가 갑니다. 그런데 이 분이 책을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봉투 때문에 팔린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 줄 아십니까? 저 출판사 말고 이 책이 참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설명해 봐야 책들은 비슷비슷하고 나야도 조금 낫습니다만 어느 책을 선택할까 고민하다 보면 그 서점 주인에게로 마음이 먼저 갑니다. 같은 값이면 그 서점 주인이 취급하는 책으로 손이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어느 것이 좋으나 나쁘냐를 열심히 설명하면 조그마한 성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큰 성공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 가느냐에 달려 있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선악과보다는 생명나무에 더 치중하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안다고 다 고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잘 고칩니다. 결혼한지 얼마 안되는 부부가 서로 버릇을 고쳐 놓겠다고 아웅다웅합니다. 그래서 버릇이 고쳐지나요? 안 고쳐집니다. 실컷 고쳐와 봐야 병만 나지 잘 안 고쳐집니다. 버릇 고친다는 것이 선악의 문제 아닐까요? “당신 하는 것은 틀렸어! 이걸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이러는 것은 선악문제입니다. 그런 것 접어 놓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면 설령 그것이 안 고쳐져도 행복해집니다. 서로가 살아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해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라 해라 하는 것은 역효과만 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키우는 경우에 많이 속상할 일이 있어도 참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고함쳐봤자 그렇게 해서 사람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것 같지만 잘 안됩니다.

잘못을 안다고 다 고치나?

사도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안되고 미워하는 저것이 자꾸 되더라는 말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고 싶은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이 잘 안되더라는 말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를 나쁜 것이라 생각하고 피울까요,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피울까요? 우린 안 피우니까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아마 알 것 같아요. 건강에 안 좋다고 그것이 끊어지나요? 뇌물을 받는 사람이 뇌물 받으면 나쁘다는 것을 모르고 뇌물을 받을까요? 알면서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도 실천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옳은 길이라 하면서도 옆으로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고 ‘집사인 내가 이러면 되겠냐, 내가 먼저 화해를 해야지. 내가 먼저 잘못했다 해야지’ 하고 문을 열지만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 누가 옳으나 그르냐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보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악과는 우리가 관심기울일 나무가 아닙니다. 정말 관심 가져야 할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지, 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학교 선생님께 그리 감사해 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의 부모들은 학교에 찾아와서 우리 아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 잘 안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이 어디 선생님 탓인가? 아이가 잘난 탓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공부 잘하는 학교일수록

심합니다. 근처에 공부 잘하는 학교 하나 있죠. 어느 교수님이 그래요. “여기 학생들은 여~영 싸가지가 없어!” 특별히 좋은 학교 나와서 온 아이들은 선생님에 대해, 교수님에 대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예전부터 공부 잘했으니 모두 자기 덕이라는 거죠.

사랑과 감사에 대한 능력은 없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만 잔뜩 늘어 가면 세상이 얼마나 슬퍼지는지 모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공부 잘했으니 굳이 선생님께 감사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마 등록금도 성적순으로 매길지 모릅니다. 공부 잘한 사람은 학교에 별로 덕 본 것 없으니까 조금만 내고 공부 못하고 꼴찌로 들어 온 아이는 앞으로 학교 덕 많이 봐야 할 것이니 등록금을 많이 내는 이런 세상이 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관심을 덜 쓰고 선악에 관심을 기울이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를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만 익숙해진다면 교회는 차가운 곳이 됩니다. ‘차가운 정통’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는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교육시켜야 하고 내가 바로잡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랑의 능력이 그만큼 내게 있지 않다면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을 내 몫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분에게 넘기세요.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능력을 더 키워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용서와 끝없는 사랑만이 우리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우리와 원수지간입니다. 선악과 때문에 아담 이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그만 쳐다보시고 대신에 생명나무를 쳐다보십시오. 그것은 장차 우리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 사랑의 능력은 더욱 대단하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잘 아는 교회임에도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참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따지기 전에 무조건 용서하시고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귀한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존중할 수 있는, 내 형제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더 크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눈에 비난하고 책망할 것은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저 잘하는 것과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만이 우리 눈에 잘 뜨이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눈에는 더러운 것만 더 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셔서 우리 형제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점만 바라보고 칭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